교구본사 지지… 멸빈자 사면 탄력 받나

설정 스님, 본사주지회의서 종헌개정안 통과 협조 요청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멸빈자 사면 관련 종헌개정안을 다룰 조계종 중앙종회 제210회 임시회가 3월 20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종단 대화합'을 천명한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각 교구본사에 뜻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교구본사들이 적극적인 지지를 결의하면서 멸빈자 사면 여론이 형성되는 분위기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3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비공개로 개최된 2018년 제1차 교구본사주지회의서 멸빈자 사면을 위한 종헌개정안 통과의 협조를 요청했다. 교구본사를 바탕으로 사면에 대한 종단적 공의를 모은 뒤 각 본사주지들이 해당교구 중앙종회의원들에게 개정안 가결에 힘써줄 것을 당부한 것이다.

총무부에 따르면 회의서는 전국 본사주지들이 총무원의 사면 의지에 대해 적극 지지할 것을 결의했다. 사면 기준과 원칙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사면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드물었다. 이 같은 교구본사의 협조를 얻기 위해 설정 스님은 최근 5회가량 지역을 순회하며 본사주지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총무원은 중앙종회 개원에 앞서 종헌개정안의 가결을 바라는 담화문 등의 입장 발표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멸빈자 사면에 관한 여론은 교구본사뿐만 아니라 입법기구인 중앙종회 내에서도 형성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중앙종회 10석을 차지하는 비구니 의원들은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멸빈된 스님들에 대한 사면에 공감하며 종헌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뜻을 모았다. 이뿐만 아니라 많은 중앙종회의원들 역시 설정 스님의 의지에 힘을 보태고 있다.

임시회 앞서 사면 의지 표명
종회 내에서도 찬성여론 형성
대화합 관련 담화문도 전망
재적의원 3분의2 동의 관건

같은 날 열린 중앙종회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회의서도 이번만큼은 상정된 법안이 통과되도록 마음을 내겠다는 의견이 잇달았다. 만당 · 성화 · 원경스님 등은 집행부의 대탕평 의지를 높게 평가하면서 지난해보다 승가화합을 향한 종단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기획실장 금산 스님 또한 "35대 집행부 출범 이후 멸빈자 사면 문제는 꼭 해결했으면 하는 발원 중 하나다. 몇 차례 걸쳐 개정안이 미뤄졌는데 임시회 이전에 총무원장스님이 의원스님들과 직접 대화를 나눌 계획"이라며 "사면이 되더라도 최소 10년은 공직에 취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사면위원회를 통해 충분하게 협의하려 한다. 종단 대화합을 위한 단초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3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열린 전국교구본사주지회의. 이 자리서 설정 스님은 멸빈자 사면을 위해 각 교구가 뜻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금산 스님에 따르면 1962년 통합종단 출범 이후 현재까지 멸빈된 스님은 230여 명이다. 이 중 타종단 이적과 환속한 자, 바라이죄와 재산비위 등의 이유로 멸빈된 자를 제외하면 사면 대상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종헌개정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무기명 비밀투표서 재적의원 3분의2인 54표를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견해도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중앙종회 회기서 부칙으로 종헌의 본조항을 제한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 종회의원 스님은 "사면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는 방법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들이 있다. 이들이 적극적으로 현재의 개정안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라고 견해를 밝혔다.

한편 현재 중앙종회에 상정된 종헌개정안은 멸빈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 종헌 제128조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해 사면 ·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종정 진제 스님이 교시로 사면을 당부하고, 前총무원장 자승 스님도 이를 추진했지만 지난해 3월 208회 임시회 이후 거듭 이월되면서 멸빈자 사면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조계종 포교원 뉴미디어 전법 본격 시동

뉴미디어팀 구성, 3월 26일 연찬회서 포교 방법론 논의

조계종이 뉴미디어 전법에 시동을 걸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이 최근 미디어팀을 구성하고 SNS 등 사회의 다양한 미디어 분석과 함께 불교계 뉴미디어 전법 방안 모색에 나선 것이다. 현재 포교원 내 뉴미디어 담당 직원 1명을 신규 채용해 배치한 상태다. 향후 뉴미디어팀은 포교원의 미디어 대응을 비롯해 교육 등을 진행한다.

먼저 포교원은 2월 10일 포교 · 신도 · 유관 단체들을 대상으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뉴미디어 활용 1차 교육을 진행했다. 1차 교육에서는 박부영 불교신문 기자를 강사로 보도자료 작성 및 언론 대상 홍보방법 교육이 진행됐다. 포교원은 미디어 교육을 통해 향후 기존 미디어와 함께 뉴미디어 활용법까지 교계 단체에 보급할 예정이다.

포교부장 가섭 스님은 "사찰 홈페이지 현황부터 교계의 미디어 전법 현황을 먼저 파악할 계획"이라며 "불교계의 다양한 뉴미디어 콘텐츠와 플랫폼 현황과 발전 방안, 현실적으로 가능한 뉴미디어 전법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포교원은 제75차 포교종책연찬회를 '뉴미디어 포교방법론, 무엇을 어떻게 할것인가'로 설정하고 3월 26일 개최할 예정이다. 불교계를 비롯해 각종 미디어 관련 전문가 10여 명을 패널로 섭외 중이다. 포교원은 연찬회서 불교계 뉴미디어 현황을 짚고 종책 개발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는 방침이다.

포교원 측은 "라디오와 신문, 잡지와 전화 등 기존 전달매체 외에 디지털 단말기를 통한 양방향, 대량, 다중의 정보소통이 이뤄지는 이른바 뉴미디어 시대에 조응하는 중장기 포교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때"라며 "불교계 콘텐츠와 이에 맞는 매체 활용 등 방안을 모색하고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귀종승 연령제한 확대 전망

종령개정안 입법예고, 만66세 이상도 가능해져

만6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조계종으로 귀종을 원하는 승려의 연령자격이 확대될 전망이다.

조계종(총무원장 설정)은 최근 '귀종승입적에 관한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은퇴출가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귀종승 연령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신청자격 변동에 따라 귀종승 신청 횟수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귀종승 자격은 고졸 또는 동등학력 이상인 자 또는 만66세 이상으로 교구본사주지 추천을 받은 자다. 이 중 연령 만50세 이하는 타종단 수행경력 1년 이상, 만65세 이하는 타종단 수행경력 10년, 만66세 이상은 타종단 수행경력 20년 이상을 갖춰야 한다. 만60세 이하로 나이를 제한하는 현행제도보다 대폭 확대된 것으로, 가족부양 의무가 없는 자는 동일하다. 아울러 기존 1회만 가능했던 귀종신청 횟수는 삭제됐다.

개정안 입법예고기간은 3월 21일까지이며, 의견수렴은 서면과 이메일(porea313@buddhism.or.kr), 팩스(02-720-3302)로 진행된다.

윤호섭 기자



성운 스님의
보리수 아래서

보시 (상) 조건없는 자비행

*보시(나눔)는 이웃을 이롭게 하는 선행이며 자비행입니다. 보시는 탐욕과 소유욕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최상의 수행입니다. 6바라밀의 첫째 덕목인 보시는 깨달음으로 가는 길의 첫걸음입니다.

*보시는 순수하고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자기를 내세우고, 보답을 기대하고, 받았으니까 주고, 내세에 복을 받으려고 보시를 한다면 그런 보시는 선행도 수행도 아닙니다.

바라는 마음(욕망)과 조건이 붙은 이기심입니다.

부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인도 중부의 고오가 강기슭에 계실 때입니다.

비야샤라는 선인이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부처님께 예배드리고 보시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부처님은 33가지의 부정(不淨)한 보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잘 분간하여 참된 보시를 해야 한다고 일러주셨습니다.

어떤 목적이나 욕망을 갖고 교환식으로 보시를 하거나 은혜를 갚기 위해 보시를 하고 버려야 할 물건을 주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고 부자에게 보시를 하는 것은 깨끗한 보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보시에는 공덕이 있을 수 없다. 그 것은 마치 말라 비틀어진 씨앗을 황폐한 밭에 심는 것과 같다. 그 씨앗은 비가 와도 싹이 나올리 없다. 싹이 나왔다 해도 꽃이 안피고 열매도 안 열리는 것과 같이 부정한 보시는 결코 공덕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깨끗한 보시란 모든 생물에 대하여 자애로운 마음으로 베푸는 것이다. 보시의 복덕은 시주의 육신이 없어져도 그림자같이 떨어지지 않는다. 시주의 베품이 적어도 복덕은 매우 큰 것이다."

비야샤 선인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보시를 행하였다고 합니다. 〈비야사문경(毘耶娑問經)〉 상권.

*보시의 공덕은 주는 마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달마대사와 중국 양무제의 대화를 다시 새겨보겠습니다. 양나라 불심천자(佛心天子) 무제(464~549)가 달마대사에게 물었습니다.


제목 · 보시-관계-자연 그림 · 조향숙

소유욕 내려놓는 수행
주었다는 생각 없어야
적은 나눔도 무량복덕

"제가 한 불사의 공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실로 공덕이 하나도 없습니다.(無功德)"

자기의 공덕을 은근히 내세운 양무제의 조건있는 보시는 범부의 유루보시(有漏布施)입니다. 번뇌가 붙어있는 유루보시의 업보는 생천(生天)하여 복락을 누리다가 그 복이 다하면 다시 빈곤한 중생으로 윤회합니다.

달마대사는 양무제의 불사공덕을 무루(無漏)의 자리에서 보았으므로 무공덕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디에도 집착함이 없이 그 마음을 내야 한다'는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과 같은 뜻입니다.

조건이 없어 번뇌가 없는 무루보시는 탐진치 삼독을 벗어나서 해탈 열반에 들게 합니다. 이제부터 조건없이 주는 무루보시 연습으로 주고나서 주었다는 생각을 잊어버리세요.

〈삼천사 회주 · 동국대 석좌교수〉



세계불교도의 정법수호연대 발족
한국불교의 380여 종단 최고 고승 및 지도자
대종사. 종사들의 법석



한국불교 지도자들 중에 종단을 불문하고 대종사. 종사 품수를 받은 모든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두 모여 불교 최고 지도자들의 법석을 통해 서로 상호간에 상견례와 대의를 위해 한국 대종사. 종사들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구촌 중생교화, 교육, 중생구제, 인간방생을 통한 세계가 하나 됨을 실천하며, 세계불교의 위상을 높이고 정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정각회 국회의원님들과 미얀마 대사님을 모시는 뜻 깊은 법석에 큰스님께서 자리를 함께하시어 지구촌을 밝히는 빛이 되고 중생의 지팡이가 되어 주시옵길 두손 모아 합장하며 청하옵니다.

명예총재 : 금산 큰스님. 총재 : 목탁 대승정
재가자국제교류불자회 국제붓다평화봉사단
준비위원 : 혜승. 혜선. 성각. 정오. 청운. 심오. 법산. 상운. 대공. 법운. 송운. 송몽. 묵하
봉행위원장 혜정 대종사
대 회 장 인경 대종사

■ 일 시 : 2018년 4월 24일 10시 30분 정각 ■ 장 소 : 용산 백범기념관

주최 : 한국불교정법수호연대. 한국불교 대종사, 종사 연합협의회 | 후원 : 법인 세계불교법왕청.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문의 : ☎ 02)733-5665. 010-3618-6061 / 팩스 02)733-5615

※ 자리 배석 관계로 미리 참석여부를 문자 및 전화로 신청바랍니다.